

보도시점 2023. 9. 14.(목) 08:00 배포 2023. 9. 14.(목) 08:00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K-관광산업 미래세대 성장기반 마련한다

- 9. 12.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 출범, 1차 토론회 개최
- 민관 협의체로 관광산업 미래 청사진 도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2일(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K-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미래 청사진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을 출범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이 주관하는 특별전담팀에는 정책 실행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공공기관의 대표주자로 참여하고, 관광벤처기업,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전통 관광기업 관계자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우선 문체부와 관광공사, 문광연 등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관광산업 디지털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정책과제 방향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미래에 본격적으로 다가올 산업 구조 변화를 준비하는 작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관광기업 생산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글로벌 승자독식 구조를 초래해 전통 관광사업체가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공유했다.

이어 대응 방향으로 ▲관광산업 업종별·단계별 디지털전환 지원체계 마련, ▲데이터 친화적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력양성, ▲디지털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해 글로벌 관광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은 앞으로 관광 기술 분야 학계와 기업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네 차례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관광산업 미래 디지털 혁신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부 옹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챗지피티(ChatGPT) 등장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학계와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으로 떠오르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이를 통해 K-관광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작동하도록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권수진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임종우 (044-203-2867)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新성장 4.0
상상을 현실로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